십자가와 제자훈련(I), 누구의 제자?
(마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간 동안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상하는 바로는 네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삼박자 축복이 한국교회에 익숙하게 된 상황에 어떤 공헌이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조용기 목사님께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에는 전적으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옥한음 목사님의 공로에 힘입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박자 축복을 말씀하신 조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의도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십자가 복음을 교리의 차원에 묶여있는 차원에서 고난주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죄 사함이라고 하는 종교적 깨우침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현실 속으로 갖고 나오려는 깊은 영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훈련을 우리의 귀에 이렇게 익숙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언급하게 된 데는 옥한음 목사님의 귀한 의도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교회는 발전하고 교회는 많아지는데, 한국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누구나가 다 안고 고민해야 될 이 점을 앞장서서 아마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깊이 고민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깊은 의도, 참으로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의도가 제자훈련이라는 이 옥한음 목사님이 주장하신 단어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삼박자 축복을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옥한음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자훈련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깊은 의도가 있어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자라는 말도 저도 알고, 훈련이라는 말도 압니다. 또 성경 속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훈련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

경 속에 있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제자훈련을 배우고 익힌 과정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번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이건 논문이 아니니까... 논문이라면 '옥한음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틀렸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제자훈련은 다시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논문이 아니니까.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제자훈련이라는 귀한 단어를 나름대로 해석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유언이라고 하면 지상세계를 끝내시고 지상세계를 떠나시기 전에 가장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고 있었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유언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한 번 우리가 질문을 해 봅니다.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상식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식적인 제자라고 하는 깨달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고 있거나 배웠거나 배운 사람. 제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라는 말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도 제자 제자 하니까 아예 기독교라고 하는 명시를 해 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더군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게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는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다시 말하면 다시 표현해 보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더군요.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서들을 보니까 -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몇 권의 주석서들은 -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추호의 의심도 없이…

자, 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느냐? 본문이 말하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느냐? 혹시 다른 사람의 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묻게 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자, 제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제자의 정의에서부터 이러한 이상한 질문, 낯선 질문의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정의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완성단계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성경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가장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오순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쫄랑쫄랑 쫓아 다니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도 아닙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에서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어떤 뉘앙스를 받느냐 하면 훈련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지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다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제자 된 자의 질문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연합했더니 - 내가 죽었습니다. - 이 세상에 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제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왜 나의 경건이 이런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 나에게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꿔 말씀하십니까? "내가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

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또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다시 한 번 표현합니다.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예수라는 스승을 통해 훈련을 받아 습득한 예수 적 품성을 나타냄을 통하여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 예수가 직접 행하신 것이다." 이게 어디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스승에게 배운다. 왜 스승에게 배우려 합니까? 제자가 제자 되려는 마음을 먹는 이유는 자기완성에 있습니다. 자기완성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스승이 도자기를 잘 굽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와서 도자기 굽는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도자기 굽는 사람으로서 스승의 기술을 배워서 도자기 굽는 자로서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제자로서 가장 훌륭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까지 스승의 기술을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하는 게 제자의 목표입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는 더 이상 그 스승에게서 배울 것이 없을 만큼 스승의 것을 자기에게 완전히 습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습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하산하라!" 스승과의 결별입니다. 그분이 스승인 것은 죽을 때까지 스승이지마는 스승과 함께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내가 습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승이 없어도 스승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자기를 스승이 없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나 혼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리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도자기 굽는 스승과 도자기 굽는 것을 배우려는 제자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얘기는 제자가 아직 제자 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라서 같이 먹고 살기 때문이지요. 순전히 도자기 굽는 기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모신다고 할 때 제자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리스도적 품성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적 품성을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도 그리스도적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때는 그리스도적 품성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곧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적 품성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를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적 품성을 배워서 이제 네가 어디를 가도 나와 상관없이 내가 살던 모습대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완성되는 날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맞아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서 바울서신부터는 제자라는 말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립니다. 딱 한 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누구에게 나타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는 말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할 때의 그 제자라는 단어 말고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 됨을 설명할 때 제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생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로 불렸습니까? 선생으로 불렸습니다. 공관복음에 5,60 번 가량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게 나옵니다. 랍비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확증이 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오시면서 십자가의 사건과 객관적인 부활사건이, 내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사건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관적인 사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재현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랍비이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는 사도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있었던 것처럼…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우리들의 랍비라고 칭함을 받던 훌륭한 일곱 명의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의 한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말리엘 문하생들이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유대사회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제자를 불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을 경험하고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지고 해석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닐 때, '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도 여전히 사회적

관습상 유대 전통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보였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룹을 사회적으로 부를 때 제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제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훈련된 제자는 스승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스승의 품성이나 지식을 완전히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든 자로써 스승이 없이도 스승과 같은 삶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적 품성을 배워서 익혀서 표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활동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쫓아 다닐 때 정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자기 생의 완성을 위해 스승을 찾는 거니까. 자기완성을 위해 스승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님을 통하여 예수라는 스승을 통하여 자기인생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정치적인 면에서건 민족적인 차원에서건 개인적인 차원에서건 간에 자기인생의 완성을 꾀했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러한 제자로서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 간의 스승과 제자 사이가 끝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 됨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제자 됨이 중단되어 버리고 제자 됨이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스승인 예수님을 통하여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의 제자 됨의 의도가 십자가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강림이 있은 이후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거꾸로 스승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도를 완성시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의 몸을 이용해서 스승인 당신의 뜻과 의도를 성취해 가며 완성해 간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였던 자들의 예수의 제자 됨이 끝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나 쉬운 얘기를 상식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대 관습상 예수님에 속한 무리들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열두 명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마리아조차도 바리새인도 유대사람 모두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니까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 당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 이 제자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우린 무조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를 통하여 자기들의 인생을 완성시키려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스승과 제자들처럼 당연한 겁니다. 열두제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스승이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끝나 버립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에서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완성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인품을 완성하고 자기의 생애를 완성하고 자기의 꿈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승이었던 예수가 제자들 속으로 들어와서 스승의 꿈과 뜻을 완성하고 스승의 계획을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바울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냐? 그래서 진짜 네 안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을 표현하며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냐? 그러면 너는 제자를 삼으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의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완성하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의 제자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당신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을 완성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있다고 하면 아담스미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담스미스가 가르치는 경제이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담스미스와는 배울 것을 다 배운 다음에는 결별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담스미스라는 스승 밑에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습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있는 채로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뭔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을 스승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사도바울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뭘 가르칩니까? 사도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다 습득하고 나면 사도바울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예요.

사도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

합이라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사도바울을 버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요?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요.

사도바울의 가르침은 사도바울을 통해 주신 성령의 가르치심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취권을 배웠다 합시다. 무당파에 소속되어 중국의 쿵푸 취권을 배웠다고 한다면 취권은 내 것이 되는 것이지만 무당파와는 결별할 수가 있어요. 무당파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면 전갈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전갈파에서 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자기완성을 위한 것이고 스승과 마지막에 결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스승의 모든 걸 배우는 것이 참된 제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는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사도바울에게 배우고 베드로에게 배우고,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주석서들이 이렇게 쉽게 함부로 쓰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함부로 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복음의 사건을 또 다른 율법주의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깨닫는 대로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인격과는 별개로 내가 습득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율법주의로 바뀌어 버립니다.

훈련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수련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공생애의 예수의 제자 됨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끝나고 종식될 때라야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이제 나의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내가 제자로 삼아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돕고 가르친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제자훈련을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자들이에요. 나 스스로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라는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보면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

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십자가 사건 말하는 것이지요?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십자가를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모든 민족,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제자로 삼아 내가 스승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되기 전까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강림 이전까지의 예수의 제자 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지양되어야 하고 종식되어야 하고 끝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완성시켜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완성시켜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가? 제 경험상 내 제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데 이제까지 실패에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내일은 제자훈련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해 주심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완성하려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경험하는 삼박자의 축복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스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